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경험에 관한 단일사례연구

박 안 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과정과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분석과 상담전공 대학원생에 관한 선행연구 및 성경적 관점에서 교육분석을 검토하여 연구 명제를 설정하고,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을 경험한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단일사례를 분석하여 명제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기독교 세계관 관점의 사례개념화와 성경 말씀을 제시하는 상담 방법 및 함께 하는 기도를 통해 피분석자와 하나님을 연결하였고, 피분석자에게 수용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담의 경계를 넘어 '함께 버려주는 돌봄'을 제공하여 모델링이 되었다.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경험의 의미는 '거듭남'으로 도출되었고, 연구참여자는 역시 자신의 내담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을 통해 상담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으로 전수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 명제는 수정되었다. 본 연구는 학업초기 학업의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 뿐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분석이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와 논의의 계기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단일사례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주제어: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단일사례연구, 사례개념화, 돌봄

* 헤세드상담센터 실장

I. 여는 글

상담자가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절히 갖추기 위해 상담자 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자기성찰이 강조되어왔다(Skovholt & Ronnestad, 1992; 김영진, 김명찬, 2021). 슈퍼비전과 교육분석은 상담자의 발달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슈퍼비전은 교육의 한 형태로 교육분석은 상담의 한 형태로 경험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분석은 상담자 자신이 상담을 받아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자각함으로써 더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하게 될 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나 소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내담자를 위한 개입도 보다 효과적이 되도록 해 상담자 전문성 향상에 유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나리, 이영순, 2017). Orlinsky, Botermans와 Rønneasta (2001)가 4,000명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조사를 통해 교육분석이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 이래 교육분석이 임상경험이나 슈퍼비전보다 상담자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더 영향이 크다는 보고가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슈퍼비전 연구가 활발했던 국내 상담학계에도 교육분석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 강나리, 이영순, 2017; 이희정, 박명희, 2020).

한편 상담자들은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 보편적으로 상담전공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 및 수련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국내 상담전공 대학원생은 학부 전공에서 상담전공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직업에서 상담자로 전환하기 위해 입학하는 등 진로전환 과정을 통해 상담전공 대학원생이 된 경우가 많아 그 배경과 연령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이기쁨, 김희수, 2022; 최희주, 김영근, 2023). 이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많은 양의 학습을 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상담 자격 취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련 과정이나 직업세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진로나 자신의 삶에 대한 막연함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수, 슈퍼바이저 등의 조언과 선후배의 교류는 물론 더 나아가 '내담자로서 상담경험'이 상담자 발달 초기 적응에 필수적인 경험으로 제기되고 있다(조민경, 장유진, 2020; 진미진, 손은정, 2021; 최희주, 김영근, 2023).

이에 본 연구는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분석을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한다. 교육분석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독교 상담이나 성경적상담 영역에서는 교육분석을 기술하거나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경험을 통해 성장을 이루

게 되는지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탐색적인 기초작업 성격을 갖는 본 연구가 성경적인 교육분석의 초석을 제공함과 동시에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이 연구를 통해 제공된 피분석자의 변화과정 자료가 성경적상담 상담자 양성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과정과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사례연구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분석과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성경적관점의 교육분석을 고찰한 후 단일사례 분석 작업을 할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경적관점의 교육분석 과정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 후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진로전환 상담대학원생의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어떠한가’이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진로전환 상담대학원생은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진로전환 상담대학원생에게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경험의 의미와 영향은 무엇인가?’ 이다.

II. 펴는 글

1. 교육분석의 의미와 핵심

‘교육분석(educational analysis)’은 ‘상담자가 받는 개인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일컫는 용어로 상담학과와 업계에서 널리 쓰이며, 일반 상담과는 두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김정연, 박명희, 2016). 하나는 교육분석의 내담자가 상담자 또는 상담수련자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분석이 상담이면서 동시에 임상실제 속에서 상담 방법이나 상담자 모델에 대한 학습 또는 교육의 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구별점이 그대로 교육분석의 장점이 되고 있는데, 먼저 교육분석은 상담자가 받는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처한 문제와 갈등을 탐구하며 상담자 개인의 욕구나 자기 인식, 장단점과 한계에 대한 인식 등에 도움이 된다. 또한 상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전문성 개발을 위한 훈련수단이 되어 내담자에 대한 공감이나 상담관계 구축, 상담 이론의 적용뿐 아니라 역전이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등 상담자의 상담 역량을 높여 상담자의 스트레스나 소진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혜정, 2020). 교육분석의 이러한 장점과 유익에 따라 상담 관련 학회의 자격증 규정에도 교육분석 경험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한국상담학회는 2급은 10회기 이상, 1급은 20회기 이상의 내담자 경험 즉 교육분석 경험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고 있으며,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도 감독상담사가 되는 요건에 6시간 교육분석을 받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육분석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교육분석의 필요성과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에서 최근에는 교육분석의 과정을 면밀히 탐색하는 추세이다. 김민정, 조화진(2015)은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상담자의 교육수준, 실무경험, 수퍼비전 경험간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이 세 가지가 모두 높은 수준이어도 교육분석 경험이 없는 상담자는 발달 수준이 낮게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며 상담자 발달 과정과 관련 연구에 교육분석을 포함하는 관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담자들이 교육분석에서 어떤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근거이론으로 분석한 김정연, 박명희(2016)의 연구는 교육분석 경험의 변화과정을 혼란, 저항, 재경험, 수용의 네 단계로 개념화하고 이 단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재정의하고 자신을 수용하면서 자유와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상담자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게 되는 교육분석의 효과는 교육분석의 의미를 현상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연구참여자인 상담자들은 교육분석을 받기 전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기보다 억압하였으나 교육분석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의 자기 수용은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경험하는 치유, 성장 과정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교육분석이 상담자의 개인적인 성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강나리, 이영순, 2017).

이희정과 박명희(2020)는 초심 상담수련생의 교육분석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수행하고 그 변화과정이 궁금해 하는 단계, 부딪히는 단계, 곁도는 단계, 몰입하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임을 제시하였다. 상담수련생들은 상담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이 상담을 잘 할 수 있을지 상대적으로 불안이 높아 '궁금해 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실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싶은 큰 기대감과 두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수용'은 상담수련생에게도 교육분석의 핵심이었다. 이들은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분석자에게 개방하면서 자기성찰이 깊어지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는데 수용 받는 경험은 자신의 내담자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내담자의 힘든 감정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수용 받는 경험이 상담에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숙련상담자의 교육분석 과정에서 보인 것과 유사했다(이희정, 박명희, 2020).

이처럼 교육분석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교육분석에서 수용되는 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자들은 교육분석이라는 상담에서 자신이 수용 받는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지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는 결국 상담 기법이나 상담자의 태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가져오며 결국 내담자를 담을 수 있는 품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교육분석에서의 수용 경험은 상담 관계에서 마치 샘의 근원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정연, 박명희, 2016; 강나리, 이영순, 2017; 이희정, 박명희, 2020).

교육분석가의 선택에 대한 연구에서 피분석자들은 분석가의 '전문적인 능력' 뿐 아니라 수용해줄 수 있는 '따뜻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 유성경, 2012) 분석가와의 관계경험은 그것이 양육자가 되어 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든 또는 상담자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수용적 태도가 핵심이며 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성격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이며 동시에 훈련이 요구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분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상담자의 전문성과 상담 성과를 높이는 것일까. 이문희와 조은향(2013)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이해 및 개선 경험이 교육분석의 효과라는 점에 주목하여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기대인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교육분석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분석 효과가 상담자의 공감능력 향상과 역전이 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이라는 상담자 개인의 성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가 증거 기반 치료(evidence based treatment)의 보급으로 점점 전문상담이 매뉴얼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기계적인 전달자로의 상담자가 아닌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상담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교육분석을 통한 상담자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문희, 조은향, 2012).

지금까지 교육분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교육분석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분석가와 안전하고 신뢰로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석가나 피분석가의 자기성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또는 분석이 불편해지고 정체되는 상황을 분석가와 피분석가가 그 역동과 감정을 함께 살펴볼 기회로 여기지 않는다면 교육분석이 개인적 성숙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이수련, 권경인, 202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한 관계를 기반으로 수용되는 경험이 제공된다면 교육분석은 상담자의 문제해결과 전문가로서의 성장 및 상담 성과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런 이유로 상담자의 발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상담전공 동기 및 경험

현재 국내 상담자 양성은 대학원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이 보편적이며 대학원 교육과정은 전문상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업과정 및 수련과정을 제공한다(김영진, 김명찬, 2021; 안유진, 김명찬, 2022). 상담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연령이나 교육적 직업적 배경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상담전공 대학원생들 중 진로를 전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눈에 띈다. 진로전환은 직업이나 전공 등에서 변화를 피하고 그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상담학계에는 다른 전공에서 상담전공으로 진로를 전환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진로전환을 한 학생이나 그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조민경, 장유진, 2020; 최희주, 김영근, 2023).

상담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이 상담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상담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결정적이다. 내적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기이해를 통한 성장 욕구 및 자신의 문제 해결이라는 동기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을 돕고 싶은 친사회적 욕구 및 소명에 대한 동기이다(계진, 김진선, 신주연, 2022). 특수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이들이 가진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에 주목하였는데, 연구 참여 대학원생들은 오랜 시간 인간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가족 문제로 겪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상담전공을 선택하였다(계진, 김진선, 신주연, 2022). 상담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들의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대한 기대감, 상담전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상담자로 진로를 전환한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상담전공 계기로 '자아실현'과 '문제해결'이라는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를 꼽았는데, 자아실현은 진로선택에서 소득이나 근무여건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공에서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문제해결 특히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해결 뿐 아니라 가족 문제의 해결이 상담을 전공한 동기가 된 점은 상담 전공 선택과 관련하여 보이는 독특한 점이다(조민경, 장유진, 2020; 김명화, 2023). 상담전문가로 진로를 전환하여 상담관련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도 과거 직접적 혹은 가족과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

심리학 및 상담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심리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동기가 상담전문가로 진로로 결정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와 타인을 위한 동기가 서로 연결되어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최혜윤, 김은하, 홍숙선, 2019).

공학을 전공했으나 대학원에서 상담으로 전공을 전환한 대학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 의적 질적 연구는 이들 중 대부분이 내담자로서 상담을 직접 경험하고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상이 상담입문 동기가 되었고 이는 상담 공부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누군가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목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조민경, 장유진, 2020). 정미향(2023)이 수행한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자기성찰 경험 연구에서도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되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일이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순서를 보였는데, 자기 자신의 이해가 타인 이해로 연결되는 것은 상담전공 동기에서도, 대학원 학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인 순서와 흐름이었다. 특수대학원에 속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또한 대학원에서의 학습과 경험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관찰하는 자기'를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의 반복의 결과로서 타인을 이해하는 변화로 이어졌다고 보고하였다(김지유, 진명일, 2020).

한편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 내 많은 양의 학습을 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상담 자격 취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해야 하는 현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진미진, 손은정, 2021). 이 연구는 특히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전문적 도움'을 강조하였는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수퍼바이저나 교수의 지지가 필요하며 특히 교육분석으로 통해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전공이나 직업을 바꾼 진로전환 학생들은 상담전공 대학원 입학 후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 가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특히 상담자가 되는 길에 대한 배경정보가 부족한 것이 초기 적응 어려움의 요인이라고 호소하였다(조민경, 장유진, 2020). 진로를 전환한 학생 뿐 아니라 학부에서 유사한 전공을 한 학생들도 대학원 진학 전후에 상담자 훈련 과정이나 자격증 취득, 상담자 직업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문적 도움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선배와의 만남, 동료 모임 등이 상담 입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현하였으며 더 나아가 내담자가 되어보는 경험이 학업 초기 적응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타 직종 출신 상담자의 진로전환에 대한 연구 또한 전환초기에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경험하는 상담전공자 또는 초심 상담자들이 좋은 상담자 모델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 분석과정을 거치며 회복 경험을 해나가면서 진로전환 동기가 높아지고 상담에 대한 가치가 더욱 확고해져 상담자라는 직업은 소명이 되며, 상담 학업의 난관에서 동료나 선배 상담자들의 도움과 지지가 끝까지 해내는 중요한 힘이 된다고 보았다(최희주, 김영근, 202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담전공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대학원에서 상담전공을 선택하는 동기나 전공 과정은 모두 자기 이해나 자기 문제의 해결로 출발하나 그것은 타인 이해와 관계와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대학원 학습 과정에서 동료, 선배, 교수 및 슈퍼바이저 등과의 관계적 요소는 이들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상담자가 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학 학업 과정에서 상담 경험, 교육 분석, 집단 참여, 슈퍼비전 등 예비 상담자로서의 '체험적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내담자로서 상담경험'인 교육분석은 초기 적응에 필수적이다.

3. 교육분석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성경적상담은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므로(김준, 2016) 교육분석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는 교육분석과 일치하는 개념이 있지는 않으나 교육분석의 근간이 되는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관계'를 볼 때 멘토링, 즉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어 발전적인 인격교류를 갖는 인간관계가 연관될 수 있으며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멘토-멘티 관계 중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송영목(2010)은 바울의 멘토링을 평가함에 있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디모데를 동역자로 대우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으로 돌보며 모범을 보였으며, 경험을 넘어 말씀으로 멘토링을 함과 동시에 멘토 자신의 마음을 열어 멘티의 마음을 다루었다고 평가했다. 이경희(2018)는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디모데를 단순한 교훈으로 안내한 것이 아닌 개인적 관계에 기반 하여 자신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김현광(2021)도

디모데에게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사랑을 제공한 바울의 양육에 대한 목회적 시사점을 남겼다.

이관직(2020)은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를 논했는데 대상관계이론의 개념을 빌어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충분히 좋은 엄마 대상’과 ‘이상화’경험을 제공하는 아버지 대상이 되어주었다는 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했다고 했다. 바울이 보여준 온유함이 ‘품어주는 환경’에 필수적인 자질이었다는 그의 평가는 특히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관계’가 슈퍼비전 성과 뿐 아니라 상담의 과정 및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민현, 최한나, 2024). 비록 슈퍼비전과 교육분석이 그 구체적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경험 모두 ‘관계’가 핵심이라는 점, 특히 ‘슈퍼비전 관계’는 작업동맹보다는 큰 개념이라는 점에서 교육분석에서의 ‘관계’는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자신이 곧 관계적이기에 인간도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적 존재이며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 장에서 살펴본 바울과 디모데 역시 이 관계가 근간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와 교육분석의 핵심인 관계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 성경적상담의 교육분석을 살펴보는 본 연구와 그 결과는 그 구별되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연구방법

1) 연구방법과 연구명제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하는 기독교 상담 연구는 이미 존재하는 실재를 설명으로서 찾아가는 과정이며, 실재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가를 밝히는 연구 방법인 ‘사례연구’는 인간 현상에 대해 존재론적 관점과 인식론적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하는 연구에 부합하다(이영철, 2006; 박안나, 김준, 2022).

Dul과 Hak은 이론 개발에 기여하는 이론지향연구를 제안했는데 이 중 하나인 이론 검증연구는 명제를 명료화한 후 실험이나 단일사례연구 또는 설문조사로 명제를 검증한다(Dul & Hak, 2017). 본 연구는 단일사례를 통해 명제를 검증하는 이론검증연구이다. 실험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과학 연구에서 단일사례연구가 좋은 대안이 되며

이 이유로 임상 분야에서 단일사례연구가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Dul & Hak, 2017; 배희분, 최연실, 2019). 명제를 검증하는 이론검증연구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명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명제: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이 피분석자로서 경험한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분석가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수용'이 핵심이며 그 의미는 이 '수용'이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적용되는데 있다.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검증을 반복하면서 명제가 맞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명제가 맞지 않다는 하나의 사례를 발견한다면 그 명제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정도로 충분하다(Dul & Hak, 2017: 77).

2) 연구참여자와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분석가

'모르는 것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계가 있는 사례'라는 단일사례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계인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을 경험한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교육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참여자 M의 사례를 선정하였다(Yin, 2016). 연구참여자 M은 28세로 학부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후 진로와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센터상담과 정신건강의 진료, 미술치료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마음,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M은 심리학 학사과정을 사이버로 이수하고 상담전공 대학원에 진학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담수련과 교육분석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M은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다루고 싶어 연구자가 근무하는 상담센터에서 교육분석을 받게 되었고 상담전공 대학원에 들어간 첫 학기와 두 번째 학기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37회기의 교육분석을 받았다.

분석자인 본 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성경적상담학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성경적상담과 관련된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성경적상담 전문기관인 기독교상담센터에서 전문상담을 하며 수련과정을 통해 성경적상담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

3)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

자료수집은 회기록, 사례개념화 차트 및 상담시 사용했던 활동지, 인지기록표, SNS 소통내용 등의 기록을 기본으로 연구참여자와의 세 번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면담은 대면으로 진로전환과 상담전공의 동기, 교육분석을 받게 된 계기, 기대, 상담센터 선택, 상담과정 경험, 기억에 남는 회기, 상담받으면서 하게 된 생각, 상

답학업과 교육분석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느끼게 된 점 등 교육분석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해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 후 축어록으로 풀어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면담은 이메일을 통한 서면 면담으로 이전 면담에서 드러난 개념과 관련된 의미를 확인하고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교육분석은 1, 2학기를 걸쳐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심층 면담은 4학기를 마치는 시점으로 계획하여 교육분석 종결로부터 너무 오래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의 학업과 수련경험으로 상담전공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교육분석에 대한 진술이 최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교육분석을 마친 후 3학기를 전후하여 상담자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였다.

자료분석은 Duk와 Hak(2008)의 이론검증 단일사례연구방법론의 절차를 따라 명제 검증에 적절한 사례를 선정하고 면담과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로 반복적으로 탐색, 검토하고 재배열하는 분석적 순환 과정을 실시했다. 기록과 연구참여자의 진술 중에서 명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찾아 그 의미를 확인하고 통합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결과 기술에 연구참여자의 면담 축어록의 일부를 인용하였다(Duk & Hak, 2008; 방기연, 2018).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신뢰성, 의존성, 확증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Guba & Lincoln, 1994; 방기연, 2018). 타당도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단일사례이나 해당 사례와 관련된 자료원을 최대한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분석결과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는지를 확인받았다. 의존성과 확증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양상이 도출될 때마다 자신에게 '이 드러난 양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제와 양상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르게 볼 수 없는지' 등을 묻고 '주요 발견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여 연구의 확증성과 명확성을 증가시키도록 했다. 또한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학 박사 2인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검수를 받았다(Yin, 2016).

4)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정보를 몇 차례 걸쳐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 후 참여, 녹음, 권리 등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서면 동의서에는 연구참여 의사 철회 또한 명시하였다.

5. 연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기술된다. 하나는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의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의미이다. 먼저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과정을 살펴본다.

1) 연구참여자의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과정

연구참여자 교육분석은 총 37회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를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누었을 때 1~3회기가 초기, 4~35회기가 중기, 마지막 두 회기인 36, 37회기가 종결기이다. 분석결과, 초기는 사례개념화 내용이 포함되며 중기에는 교육분석 방법과 내용을, 종결기에는 교육분석 만족도가 포함된다. 결과 기술은 교육분석 과정에 대한 기술이므로 분석가와 피분석자로 명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분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내담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담자로 표현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진술이 과정 기술에 대한 이해에 용이할 경우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과정 기술에 충실하면서도 피분석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다.

(1)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의 사례개념화

피분석자인 M의 주호소는 우울이었다. 수년간 준비한 진로 계획이 뜻하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흔들렸고 이를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마음으로 지내는 중 였던 데 덮친 격으로 가족구성원을 잃게 되는 상실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다. 초기 3회기까지는 피분석자 M이 풀어내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경청하면서 공감과 위로를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결론을 내지 않으셨기에 M의 삶도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는 소망을 주며 사례개념화 작업을 했다. 분석가는 M의 우울감 유발요인을 지난 몇 년간 삶의 기록에서 들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것, 즉 질문만 있는 마음상태로 보았다. 그러한 상태를 더욱 강화시킨 유지요인은 다양한 시도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일들과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상실 등 외부 요소였다. 유발요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담자가 질문만 있는 마음 상태가 된 데에는 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거나 방법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그동안 마음 속 여러 질문들에 답을 주지 않은 것은 불안한 감정을 일으켰고 반복되는 불안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상실 경험이 더해져 우울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하나님 안에서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내담자 마음에 대한 핵심 과제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불안을 일으키

는 요소를 해결하여 불안에서 오는 우울을 감소하는 핵심 과제가 M의 마음을 회복하는 기초이며 여기에 필요에 따라 애도나 실패감을 다루려는 우선순위를 정리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하나님 관점에서 지나온 날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앞날을 보는 것'을 상담목표로 정하였고 이런 관점이 성경적상담임을 설명하며 상담목표에 합의하였다. 임상적 목표는 지난날의 의문과 앞날에 대한 의문 모두에 하나님 관점에서 답을 주어 불안을 낮추고 그 답을 가진 채 일상을 구체적으로 사는 경험을 통해 우울감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분석은 상담이면서 동시에 상담의 시연 또는 상담자의 모델링도 이루어지나 그 본질은 상담이다. 피분석자 M은 '상담을 원했지 교육분석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했음을 고백했다. 따라서 분석가는 한 사람의 내담자로 피분석자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당시에는 사례개념화나 상담목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후에 상담목표에 대하여 피분석자 M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실 그때에 상담이 목표 있는 대화라는 것을 몰랐는데 지나고 알았어요. 제 속에서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갈피를 못 잡고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맞는 경계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라 들어오라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로 저를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게 놀라웠어요. 저 능력을 갖춰야겠다 싶었어요. 전문성을요.

(2)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중기 상담과 모델링

상담목표를 세운 후 상담 중기의 대부분의 회기는 피분석자 M의 마음에 있는 질문을 인식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과 대화를 통해 찾는 시간이었으며 모든 회기 마지막은 기도로 마치되 분석가와 피분석자가 회기마다 번갈아 했다.

M의 마음에는 이전부터 가져온 질문과 대학원에서 상담전공을 하며 마주하게 되는 질문까지 많은 질문들이 마치 미처리 서류터미처럼 쌓여있었다. 매회기 자연스럽게 또는 분석가가 의도한 주제 안에서 M의 마음 속 질문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내가 가족을 힘들게 했나?', '다른 거 해야 하나?', '이 길이 맞나? 신학을 해야하나?', '내가 잘못 산 것 아닐까?',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그 사람은 왜 그랬지?', '뭐라고 말하지?' 등이었다. 가보지 않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만난 하나님 또는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면서 인도하심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고 이것만으로도 불안이 낮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서는 뿌리 깊은 신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가? 그 질문은 어떤 생각이 전제된 질문인가?'를 생각하도록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의 수정 작업을 하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성경 말씀을 제공하고 그 의미를 피분석자 스스로 적용하도록 도왔다. 잠언 3장 6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같은 말씀이었다. 또한 상담사로서의 진로에 대해서는 상담자의 부르심에 대해 나누고 성경적상담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으로 답을 제공하였다.

한 학기를 마친 M이 소진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부정적 자극과 내가 상담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M을 흔들어 우울감이 깊어지는 고비를 맞게 되었다. 외로움의 감정에 휩싸인 피분석자를 위해 분석가는 방학기간 일주일일에 2회로 구조화하였고 많은 상담 회수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기 위해 기관에 상담료 일부 감면을 요청하여 약 5주간 지원하였다. M은 1주에 2회씩 교육분석을 받으면서 감정에 휩싸이는 경향이 줄어들고 의식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면서 우울감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학기 개강을 맞이한 M은 뜻밖에 대학원에서 부정적인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 다시 학업에 대한 불확신으로 우울감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위기를 맞았다. 분석가는 M이 그 사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분석이 없는 날에도 필요시 연락을 하도록 조치하고 SNS 메신저로 최대한 응대하였다. 상황이 악화되고 M이 깊은 우울감을 호소함에 따라 MINI 자살경향 설문을 실시한 후 자살방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MMPI-2 검사 실시 후 동의를 받아 M의 어머니를 센터로 오시게 하여 1회기 상담을 진행, M의 회복을 위한 협조 가이드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M의 높은 우울감이 지속되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몇 회기 동안 결정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함으로 '함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시기 피분석자에게 우울점수, 상황, 생각, 대안 생각,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인지기록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하루에 2회 기록하도록 하였고 분석가도 해당 표에 피드백을 기입하여 교육분석이 없는 날에도 기록표를 통한 소통을 몇 주간 이어나갔다. 우울점수가 몇 일간 연속 계속 높으면 M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M이 공유한 설교를 분석가도 듣고 교육분석 상담에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메시지에 반응되는 것을 계기로 M의 우울감이 감소하였고

이 시기 교육분석 후에 가벼운 식탁교제를 제공하여 우울감이 감소한 기회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앙서적의 일부 내용을 유인물 형태로 과제로 주어 교육분석 회기에서 다시 그 나눔을 하고, 교육분석 시간은 물론 교육분석 회기 사이에도 SNS로 소통하며 함께 버티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칠 즈음 피분석자가 스스로 생각을 객관화하는 힘을 갖게 되고 통제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항아리에 물이 차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 같았다. 피분석자를 힘들게 했던 상황도 마침 잘 마무리가 되면서 이 수준이 유지되는 기간을 몇 주간으로 설정한 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교육분석 회기를 통해 함께 확인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대한 경험을 M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못 견디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견여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눈물흘림) 버려주는 그 마음이 너무 전해졌어요. 어느 단계를 넘으면, 뛰어넘으면 괜찮아지는게 분명한데 그 마음으로 계속 꼭 붙잡고 계셔 주시는 것 같았어요.

(3)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종결기

몇 회기에 걸쳐 안정된 마음의 유지를 체크하며 회복의 증거와 원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울감 수치가 안정된 것 외 M은 자신이 나아졌다는 것의 증거는 '부정적 생각이 줄어든 것'과 '생각을 통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하였으며 교육분석에서 나눈 성경 말씀을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기억력이 나아졌다는 보고가 마음의 회복으로 인지기능이 일부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M은 종결 후 만족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무 소망도 빛도 없는 절망 같은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 그런 시간이 찾아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말씀을 외쳐주셔서 삼위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짊짊한 동굴에서 함께 손잡고 버려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담 받는 분들에게 더욱 끈질기게 말씀을 선포해주세요!

2) 연구참여자의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과정과 그 경험의 의미를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다. 하나는 '삼자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돌봄'이다. 각각 그 경험이 담고 있는 의미를 기술한 후 종합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분석가와 피분석자, 하나님의 삼자관계이다.

연구참여자는 상담전공을 하면서 교육분석을 받은 경험에서 성경적상담 교육분석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치료처럼 흘러간 것을 느꼈는데,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요소요소들이 성경이구나 그래서 성경적상담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정체성이구나! 선생님과 여러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A4용지에 프린트해서 가져오신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든 생각이 아, 내가 찾던거다 내가 바랬던거다. 그때 어떤 희열이 느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너무 기뻐요. 그때, 그 때 힘이 크게 났던 것 같고 그 점이 가장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상담에서는 상담사와의 관계, 관계형성으로 치유가 된다고 하고 그게 치료적 공통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상담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관계..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하여 주는거구나 이 건 정말 강력할 수밖에 없다! 강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회기에 대한 진술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연결해 상담실 밖을 나가도 하나님과 함께 함을 확신하게 된 회기를 꼽았다.

저는 정말 상담 받으러 오는 그 시간이 삶에 버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상담 마치고 상담실 밖을 나갈 때는 좀 무서웠어요. 나 혼자구나 어떻게 이 길을 가지 싶어 무서웠는데 네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누고 아, 나가서 혼자 있을 때 붙들 말씀이 생겼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확 와 닿아서, 경험적으로 와 닿아서 그 회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전에는 학교에서 힘들거

나 일상 지내면서도 연락드리고 싶은 순간순간들이 많았는데, 아니야 이 말씀을 붙들자 하면서 지낼 수 있었거든요.

연구참여자는 상담실 밖 자신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자신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던 것이 상담실에서 나는 성경 말씀이었다고 말하며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적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2)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돌봄의 모델링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피분석자에게 버팀과 지지가 꼭 필요한 시기에 일상에서도 함께 버틸 수 있는 경험 두 가지가 제공되었다. 하나는 인지기록표이며 하나는 식탁교제이다. 먼저 상담실에서 훈습한 인지재구성을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상담실 밖에서도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인지기록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함께 기록하는 형식으로 두 달 간 지속하며 교육 분석이 없는 날에도 이 매개체를 통해 소통하였다. 기록이 축적되어 우울 양상을 함께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스프레드시트가 상담실 같더라고요. 혼란스러운 마음도 쓰고 나의 우울 점수도 매일 적고 '이거 써야지 산다'라는 심정으로 마음의 고민도, 공부 고민도, 진로 고민도 모두 적었던 것 같아요. 조금 후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피드백이 있어 보고 제가 쓴 내용에 어떤 거는 색깔을 입혀 하이라이트해주시고, 저도 그 밝게 된 부분을 또 생각하면서 제 일상이 이 관계로 지켜지고 있구나. 하루를 살아가는게 목표였구나 나중에 그걸 느꼈어요.

또한 연구참여자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는 마지막 터널 끝에서 교육분석 후 가벼운 식탁교제를 하게 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선생님과 식사를 하고 나서 집에 혼자 가는 길에 많이 생각했어요. 아, 나 이렇게 누군가와 만나 밥도 먹고 그랬었지! 그 때는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갖기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별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일상적인 건데, 다시 그렇게 누군가와 밥을 먹으니 집에 가는 길에 아, 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는 ‘~해도 되는구나’ ‘나 ~~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생각은 나중에는 ‘나 상담자가 되어도 되는구나’, ‘나 살아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의 기반이 되었다는 고백에서 피분석자를 한 영혼으로 보고 돌봄을 제공한 것은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3) 결론: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거듭남이다.

인생에서 이 교육분석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연구참여자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 삶에서의 교육분석의 의미는 ‘거듭남’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일이 너무 저를 흔들었고 제가 믿고 있었던 것이 뒤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그거는 놓치고 싶지 않아 기독교상담을 받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말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내가 무슨 상담자가 되나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된다는 평안을 경험했고 그런 시간이 있어 회개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를 건져주시는 손길,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거듭남’은 신학적 용어와는 다른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표현이다. 연구참여자는 ‘거듭남’의 과정이 마치 사영리 같이라며 진술을 이어갔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졌지만 그 후에도 한참동안 도움이 필요했다. 손길을 잡고 가는 경험이 마음을 정하는 힘으로 이어졌을 때 연구참여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

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무너져도 옆에서 계속 견여주는 분이 계시니까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정말 새롭게 쓰여졌어요!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또 반복될 수도 있지만 반복돼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어느 때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자리는 있다! 힘이 생겼어요.

상담전공자인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상담자가 되는 상담에 이 교육분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선 내담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내담자를 보내주신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초청하신 거니까. 저를 부르신 거니까. 저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여쭙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매회기 준비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또, 상담이론을 배우는 눈도 달라졌어요. 상담학을 공부하는 2년의 시간 동안 저는 이 물음을 한 순간도 놓지 않았어요. '이건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지? 이건 진리인가?' 모든 이론에는 인간관이 있고, 적응적인 모습, 적응적이지 않은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론을 배우며 그들의 기술과 기법이 아니라 가치관,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에 보다 주목했었어요.

교육분석시간이, 제게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저 역시 (내담자에게) 말씀의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가 첫 내담자를 상담한 것은 2024년 1월이었고 2024년 3월에 종결했다. 상담자로서 임했던 이 상담에 미친 교육분석의 영향을 다음 진술로 설명하였다.

제 첫 내담자의 종결 회기 때 (내담자로부터) 성경구절 말씀을 주셨던 것이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샘은 마르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 내담자 입에서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후에 수련감독자가 되어 교육분석을 한다면 어떤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제가 만약 수련감독자가 되어 교육분석을 한다면 회기마다 마치는 기도를 꼭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교육분석 마칠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제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고, 선생님뿐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느껴졌어요. 기도의 처음과 끝을 기도로 열고 닫는거구나 알게 되고 이게 성경적인 거고 나의 부르심이구나 싶었어요. 기도하는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 그 기도가 상담을 이어나가는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교육분석에서 아쉬운 점과 그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아쉬운 점이라면, 선생님께서 저의 사고를 많이 잡아주셨잖아요. 생각, 사고를 잡아주시려고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알려주셨구나 싶은데 그런데 저는 감정도 깊이 나눠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감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상담자로서 감정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느껴져서 제가 하는 상담에서 더 마음써서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기술한 결과로 검증된 연구명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 명제가 된다.

수정된 명제 :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이 경험한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분석가와 의 관계를 넘어 말씀으로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함께 버티주는 돌봄'이며, 그 의미는 '거듭남'이다.

6. 논의 -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본 연구는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경험과 의미에 관한 단일사례연구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보자.

먼저, 연구 명제에도 명시된 '관계'는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경험에서도 분명히 중요했다. 그러나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포함

된 삼자관계였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기독교 세계관 관점의 사례개념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분석가가 하나님과 피분석자를 이어주는 것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교육분석은 상담이면서 동시에 모델링의 현상이나 그 본질은 상담이다. 따라서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분석가는 피분석자를 분석해야할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존재로 보고 그가 짊어진 문제를 하나님 관점, 즉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인간관으로 분석하는 사례개념화 작업을 해야 한다(박안나, 2023). 이는 하나님과 분석가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며 사례개념화에 따라 교육분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피분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연구참여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경계이며 전문성이다. 연구참여자가 상담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피분석자와 문제를 보는 것, 그래서 인간 마음의 핵심인 생각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롬 12:3)'으로 넘어가는 것을 찾고 경계 내로 들어와 제자리를 찾는 것을 상담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분석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담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공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성경적상담 상담자가 훈련해야 할 참 전문성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분석가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교육분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담으로 시작되며 분석가는 교육분석이 하나님이 포함된 삼자관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성경 말씀을 담은 상담이다. 다양한 상담이론을 공부한 연구참여자가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이 다른 상담과 구별되는 것을 '컨텐츠'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성경 말씀을 '담고' 있다. 후에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받은 교육분석 방법을 인지치료, 이야기치료, 사티어 빙산과 의사소통 등 다양한 이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결국 컨텐츠가 성경 말씀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예를 들면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는 원리는 같지만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그 내용과 '합리적인 신념' 자체가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이다. 또 분석가가 감정이나 지각, 열망 같은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사티어의 빙산에서 아래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깊이 들어간 그 지점에서 결국 말씀을 만났다고 했다.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결국 마음의 깊은 곳의 믿음과 동기를 비추고 그 자리에 진리를 놓기 위해 그 과정에 성경 말씀을 담게 되며 연구참여자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이 교육분석에 담겨진 말씀들이었다. 이처럼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분석가와 피분석자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함된 삼자관계이며 그렇기에 말씀을 담게 된다.

다음으로, 연구 명제의 ‘수용’은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에도 경험되었지만 수용에 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팀과 돌봄으로 확장되었다. 다시말하면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은 버팀주며 돌봄을 제공하는 사역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상담전공자로서 이번 교육분석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전문성이나 내담자에 맞는 접근법 등을 언급하면서도 ‘가장 큰 것은 함께, 같이 묵묵히 견디어주는 힘’이었다고 했다. 함께 버팀주는 시간 그 안에는 상담실 안에서만 이뤄지는 상담을 넘어 돌봄이 있었다. 상담은 사역이고 사역은 곧 상담이며, 상담이 사역이라는 것은 상담자의 인간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Lambert, 2015). 이는 곧 피분석자를 한 사람의 내담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영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담에서는 상담실 밖에서의 만남을 제한하고 있는 구조화의 틀을 갖고 있고 이것은 전문상담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보다 상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이라는 가치이다. 이 사례에서 기관의 감면제도를 연결하고, 교육분석 회기 사이 소통을 열어놓은 것, 온라인 인지표를 제공하여 일상에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일 단위로 소통을 구조화한 것, 그리고 식탁교제를 가진 것은 한 영혼이라는 가치를 상위에 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영혼을 위해 필요하다면 상담의 틀을 넘어 돌봄과 연결지어 제공하는 것에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 물론 분석가가 상황에 따라 그 경계를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경계 기준과 관련하여 수퍼바이저가 그 동기를 점검하기를 제안한 이관직(2022)이 제시한 동기 점검을 위한 질문을 교육분석에 맞게 바꾸어 묻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왜 교육분석을 왜 하는가? 나는 이 영혼을 위한 교육분석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육분석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 교육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이다. 이관직(2022)은 이를 ‘위탁받음의 원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분석자를 내게 위탁하셨다는 의식은 분석가로 하여금 돌봄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을 돕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의 의미인 ‘거듭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이며 이는 교육분석에서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이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이 결국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연구참여자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나눔이라는 방법을 자신이

상담자가 되는 상담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단순한 평행 과정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사역의 전수가 되는 과정이며 결국 하나님과 분석가의 관계가 하나님과 피분석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피분석자가 상담자가 되는 상담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까지 흘러가는 점을 보여주었다.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를 통해 진로전환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경험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담 형태의 경험과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분석가와 피분석자와의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이들은 성경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그 관계가 수용을 넘어 버팀과 돌봄으로 실제로 구현된다는 점, 결국 한 영혼을 살리는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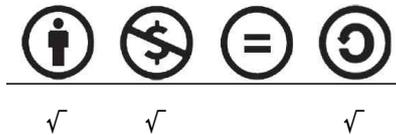
연구참여자가 교육분석에서 아쉬웠던 점에서 밝힌 감정이해의 부분은 성경적상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공감을 강조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과제를 남긴다.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에 분석가는 죄나 동기로 바로 가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에 대해 점검해보아야 하며 피분석자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상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감정이해는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하고 머물러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업초기 학업의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분석이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와 논의의 계기를 제공한다. 결국 성경적상담의 정체성인 성경의 충분성을 놓치지 않고 교육분석에 적용할 때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살릴 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역으로서의 성경적상담이 전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상담전공자들에게 교육분석이 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할 때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의 경험과 의미를 질적으로 탐색하고 핵심 개념을 제시해 성경적상담 교육분석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단일사례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후속 연구로 성경적상담 교육분석의 과정과 효과에 대한 다중사례연구와 양적연구를 제안한다.

- 논문 투고일: 2024년 0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11월 02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07일



【참고문헌】

- 강나리, 이영순 (2017). 상담자의 교육분석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치료연구**, 9(1), 109-135.
- 계진, 김진선, 신주연(2022). 특수대학원 상담전공생의 학업 과정에 나타난 전환학습 경험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육문제연구**, 44(3), 145-174. <http://dx.doi.org/10.22327/kei.2022.40.3.145>.
- 김명화 (2023). 전문직 기혼 여성의 상담 전공 동기와 상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접근.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3(6), 73-94. <http://dx.doi.org/10.22251/jlcci.2023.23.6.73>
- 김민정, 조화진 (2015). 교육수준, 실무, 슈퍼비전 경험과 교육 분석 경험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비교연구. **상담학연구**, 16(3), 67-84. <http://dx.doi.org/10.15703/KJC.16.3.201506.67>
- 김정연, 박명희 (2016).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자들의 교육분석 경험에 대한 변화과정. **상담학연구**, 17(4), 71-93. <http://dx.doi.org/10.15703/kjc.17.4.201608.71>
- 김종현 (2024). 바울-디모데 리더십의 새로운 도전과 승계: 디모데전서 4장 12-13절. **신학과 사회**, 38(1), 109-137.
- 김준 (2016). 미국 복음주의 내 성경적 상담의 확장과 '신칼빈주의'. **복음과 상담**, 24(1), 45-72.
- 김지유, 진명일 (2020). 특수대학원에 속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경험. **지역과 세계**, 44(2), 75-97. <http://dx.doi.org/10.33071/SSRICB.44.2.202006.75>
- 김현광 (2021). 목회서신을 통해 본 교회 지도자 발굴과 양육에 관한 교훈. **성경과 신학**, 97, 117-141. <http://dx.doi.org/10.17156/BT.97.04>
- 박안나 (2019). 기독교 상담에서 대상관계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과 Hoekema의 개혁주의 인간론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7(1), 149-175. <http://dx.doi.org/10.17841/jocag.2019.27.1.149>
- 박안나, 김준 (2022).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 기초한 상담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7(1), 143-164. <https://doi.org/10.30806/fs.27.1.202203.143>
- 박안나 (2023).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모형과 활용 - 성경적 관점의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8(3), 5-27. <https://doi.org/10.30806/fs.28.3>.

202309.5

- 방기연 (2018). 기혼 남성이 사이버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한 경험. **교육치료연구**, 10(2), 257-277.
- 방기연 (2022). 상담전공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단일사례연구: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적용.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 4(3), 111-129. <http://dx.doi.org/10.23108/decrc.2022.4.3.111>
- 배희분, 최연실 (2019).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의 단일사례 연구 분석 -『한국가족치료 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7(1), 181-211. <http://dx.doi.org/10.21479/kaft.2019.27.1.181>
- 송영목 (2010). 바울과 디모데 (바울의 멘토링). **갱신과 부흥**, 7, 49-60.
- 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 교육분석가(상담자의 상담자)의 특성과 선택. **상담학 연구**, 11(4), 1411-1431. <http://dx.doi.org/10.15703/KJC.11.4.201012.1411>
- 옥슬기, 최선남 (2018). 미술치료사의 교육분석 경험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25(1), 63-82. <http://dx.doi.org/10.35594/KATA.2018.25.1.004>
- 이관직 (2020).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상담 슈퍼비전 원리와 실제. **신학지남**, 87(4), 219-246.
- 이경희 (2018). 디모데서(書)에 나타난 바울의 영적지도. **대학과 선교**, 36, 265-288.
- 이기쁨, 김희수 (2021). 상담자로의 진로전환 과정 연구: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연구**, 35(3), 83-100. <http://dx.doi.org/10.979.1185011/004>
- 이문희, 조은향 (2012). 교육분석 효과척도 개발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13-29. <http://dx.doi.org/10.35151/kyci.2012.20.2.013>
- 이문희, 조은향 (2013). 상담자의 교육분석효과가 공감과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4(5), 3165-3181. <http://dx.doi.org/10.15703/kjc.14.5.201310.3165>
- 이수련, 권경인 (2022). 상담자들의 교육분석 부정적 경험 의미 연구: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근거하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2(22), 639-661. <http://dx.doi.org/10.22251/jlcci.2022.22.22.639>
- 이시현, 이제경 (2023). 진로 전환기 중년여성의 진로구성 상담 사례연구.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8(2), 1-30. <http://dx.doi.org/10.15703/kjccsp.8.2.2023.12.1>

- 이영철 (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 연구의 이론적 지위 -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보**, 40(1), 71-90.
- 이희정, 박명희 (2020). 초심 상담수련생의 교육분석 경험을 통한 변화과정: 첫 내담자 경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3), 87-113. <http://dx.doi.org/10.15703/kjc.21.3.202006.87>
- 이채하 (2023).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생들의 영성과 영적 돌봄에 관한 인식. **인문사회** 21, 14(3), 5713-5728. <http://dx.doi.org/10.22143/HSS21.14.3.409>
- 정민현, 최한나 (2024). 슈퍼비전 관계 국내외 연구 동향: 1988년~2023년까지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4(16), 737-755. <http://dx.doi.org/10.22251/jlcci.2024.24.16.737>
- 조민경, 장유진 (2020). 공학계열 출신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진로전환 경험. **상담학연구**, 21(6), 29-58. <https://doi.org/10.15703/kjc.21.6.202012.29>
- 진미진, 손은정 (2021).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스트레스가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8(3), 193-212. <https://doi.org/10.20496/cpew.2021.8.3.193>
- 최혜윤, 김은하, 홍숙선 (2019). 상담전문가로 진로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경험. **상담학연구**, 20(3), 141-164. <https://doi.org/10.15703/kjc.20.3.201906.141>
- 최희주, 김영근 (2020). 상담자로의 진로전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21(4), 79-105. <https://doi.org/10.15703/kjc.21.4.202008.79>
- 최희주, 김영근 (2023). 타 직종 출신 상담자의 진로전환 및 직업 적응과정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6(1), 61-88. <https://doi.org/10.17318/jae.2023.26.1.003>
- 홍혜정 (2020). 미술치료사가 체험한 교육분석의 의미. **질적탐구**, 6(4), 37-73. <https://doi.org/10.30940/JQI.2020.6.4.37>
- Dul, J., & Hak, T. (2017). **직접 해보는 사례연구** (안동윤, 이희수 역, *Case study methodology in business research*) 서울: 피와이메이트. (원전 2008 출판).
- Guba, E., & Lincoln, Y. S. (1994).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 Lambert, H. (2015). **성경적 상담의 핵심개념** (김준 역,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 2012 출판).

- Orlinsky, D. E., Botermans, J. F., & Rønnestad, M. H. (2001). Towards an empirically grounded model of psychotherapy training: Four thousand therapists rate influences on their development. *Australian Psychologist, 36*(2), 139-148.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Chichester, England: Wiley.
- Yin, R. K. (2013). **질적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공역,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서울: 학지사. (원전 2010 출판).
- Yin, R. K. (2016). **사례연구방법** (신경신, 서아영, 송민채 역,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서울: 한경사. (원전 2013 출판).
- Whitman, L. (2023). **성경적 상담의 길잡이** (박안나 역, *A biblical counseling process*) 서울: 토기장이. (원전 2021 출판)

[Abstract]

**A Singl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Biblical
Counseling Education Analysis of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areer Transition Counseling**

Park, An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and meaning of biblical counseling education analysis. For this purpose, a research proposition was established by reviewing previous research on educational analysis and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and educational analysi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and the proposition was verified by analyzing cases of career transition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who experienced biblical counseling and education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biblical counseling educational analysis connected the analysis and with God through case conceptualization from a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and a counseling method that presents the Bible, and provided 'care that holds together' beyond the boundaries of counseling as well as acceptance. The meaning of the Biblical counseling educational analysis experience was derived as 'rebirth,' and the research participants showed that counseling is passed down as a ministry that saves the souls of their clients by connecting them with God through the Word.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 proposition was revis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practice and research by providing core concepts and meanings of biblical counseling educational analysis experiences,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is a single case study.

Key words: biblical counseling, education analysis, a single case Study, case conceptualization, caring

* Hessed Counseling Center / Senior Counselor